

2021년 10월 29일 (금)

News

토스처럼...은행도 '원앱' 허용한다

한국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그룹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 언급
은행의 경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은행권 망 분리 규제 합리화, 금융 및 비금융 정보 공유 활성화 등 검토

가계대출 조이니...은행들 기업대출 성과 쟁충

아시아경제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조이는 분위기 속 기업 대출 크게 늘리며 전체 대출 성장세... 당분간 기업금융에 힘 주는 분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황이 좋아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시설자금 수요가 늘면서 폭발한 영향이 커... 한국은행 집계 월 증가액 7조 4,000억원

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경제

농협은행, 올해 말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
농협은행은 지난 8월말부터 가계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중단한데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전세대출만 정상적으로 취급

시중-지방은행, 고금리 특판 상품 출시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지방은행, 낮아진 자금조달비용 관리하기 위해 특판을 통해 자금 확보에 적극적... 평균 순안정자금조달비용 약 108%... 단기대출 수요 확대가 쉽지 않아 정기예금을 통해 자금확보
시중은행, 안정적인 예대출 등으로 고금리 특판 필요성 감소... 현재로서 예금금리 더 올릴 필요가 없음

손보사 GA채널, 매출 부진 연속

보험매일

손해보험사 GA채널 매출 부진 이어가... 6월 정점 찍고 3개월 연속 300억대 밑돌아... 특별히 내세를 상품 이슈가 없는 것이 원인
9월 손보사 GA채널 보장성보험 매출총액은 월납보험료 기준 26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동월 321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

보험사, 내년 보험료 인상 급제동... 평균공시이율 2.25%로 동결

머니S

금감원, 내년 평균공시이율 2.25%로 동결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져... 내년 보험료 인상에 급제동
부채 증가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시켜주겠다는 계획... 보험사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어...

테슬라 만원어치 팝니다...증권사 '소수점거래' 판간다

매일경제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0곳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중개를 위해 금융당국에 허가 신청서 제출...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도 신청서 제출
MZ세대는 기업들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큰 돈이 없어 주식 조각 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소수점 거래에 관심 많아... 기존 고객을 놓치고, 신규 고객 유치까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연말 증권사 MTS 대전...토스·카카오페이·키움 격돌

e대한경제

플랫폼 기반 증권사, 연내 및 늦어도 내년 초 MTS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출시... 개인투자자 고객이 가장 많은 키움증권도 하나로 통합된 MTS내놓을 계획
토스증권, 기존 국내주식 서비스 시작한데 이어 해외주식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달 및 연내 실시 계획... 카카오페이증권도 늦어도 내년초 나올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